

# ‘고통이 역사적 책무’인 문화후진 사회의 비애

## 《에로스 훔쳐보기》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의 경고조치를 보면서

최금수

미술평론가·서남미술전시관 학예연구원

“그림이 어렵다고들 한다. 그림을 보는 것이 직업인 나에게도 그림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림(미술)을 보는데 두가지의 기본조건을 이해하고 있다면 오히려 즐거운 그림읽기를 할 수 있다. 하나는 그림과 관련한 시대의 물적 토대(경제, 정치권력 등)를 이해하는 일이고, 둘은 그 시대의 풍속과 시대정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두개의 필요조건을 하나로 묶는 단일매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SEX이나 GENDER여도 상관없다)이다.”

나무기획 큐레이터 이섭(35세)씨가 그의 저서 《에로스 훔쳐보기》(1995년 12월, 도서출판 심지)의 책머리에 밝힌 글이다.

### 《에로스 훔쳐보기》라는 책

이섭씨는 “성에 대해 솔직하고 이유있는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편견과 오해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동서고금의 미술작품들을 뒤져 예술과 성의 예제가 《에로스 훔쳐보기》를 엮었다.

성과 관련된 예술표현은 인류의 시작부터 출발한다. 이는 문화인류학적 시각으로도 어색하지 않게 증명되어 왔다. 특히 성애장면을 다루고 있는 예술작품들은 역사 분야에서도 그 사회상을 읽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예로써 강력한 사회를 지향하는 분위기에서는 남성누드가 강조되며, 향락사회에서는 여성누드가 강조되어 왔다는 블라지미르 프리체(Vladimir Friche)의 주장 등은 예술사학 분야에서도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에두아르트 폭스(Eduard Fuchs)의 《풍속의 역사》(까치, 이기웅·박종만 옮김)는 성애장면을 담은 풍부한 도판을 제시하며 시대마다의 성문화를 적나라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이미 10년전 우리나라에서도 번역 출판되어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애독서로 판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요사이 우리 미술계에서도 조선태극 춘화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당시 계급붕괴 양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료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최근 세계 미술계에서는 환경문제와 더불어 인간의 신체 또는 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해전 국립

현대미술관에서 열렸던 〈휘트니비엔날레 서울전〉만 보아도 성애 및 동성에 장면, 전라의 가족 등을 표현한 사진 및 설치작품 등에 가족동반 관람객들이 성황을 이루었던 것을 돌이켜 볼 때 일반인들의 성에 대한 인식도 사뭇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기에 누드 및 성애장면을 게재한 《누드의 미술사》(케네드 클라크, 열화당)와 《영상커뮤니케이션과 사회》(존 버거, 나남) 등을 비롯한 적지 않은 수의 미술서적들이 이미 서점에 배포되어 양서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29일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에로스 훔쳐보기》에 경고조치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도판은 모두 5장으로 파블로 피카소의 1902~3년 작품 〈앵겔 페르난데즈와 여인〉, 구스타프 꾸르베의 1866년 작품 〈세계의 기원〉, 톰 웨셀만의 1962년 작품 〈위대한 아메리카 누드 29〉, 에이쇼 목판화 1800년경 작품 〈두 여인〉, 크리스티안 샤드의 1930년 작품 〈여자친구〉 등이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들 도판에 대해 “구체적인 남녀 성기와 성회 장면들이 노골적으로 묘사·표현되어 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연상시켜 수치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성적 묘사는 성적인욕정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5개 컬러 도판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며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내 형법 243조와 244조(음란도화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모 일간지를 통해 “우리 사회는 분단국가로서 혹은 문화 후진 사회로서 쾌락보다 고통을 감수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고통사회가 쾌락사회보다 더욱 번영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현재적 기준, 작가와 출판사의 의도성, 그리고 전체적 주제성 등으로 볼 때 아직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출판물이라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음란도화 경고를 받은 5개의 작품들뿐만 아니라 《에로스



훔쳐보기》에 수록된 대부분의 작품들은 미술교과서 혹은 미술서적 등을 통해 이미 국내에서도 인쇄된 바 있다. 그리고 다수의 작품들이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미술관 또는 박물관에 소장되어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런 예술작품들을 ‘외설’도 아닌 ‘음란물’로 판단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 형평을 잃은 판단

또한 교체요구를 받은 5장의 도판을 어떤 근거로 선정하였는가도 의심스럽다. 작년에 국내에서 전시를 가진 바 있는 톰 웨셀만 작품의 경우 《위대한 아메리카 누드 91》(207쪽 수록)은 여성을 그린 것이고, 《위대한 아메리카 누드 29》(145쪽 수록)는 남성을 묘사한 연작이다. 그런데 오히려 207쪽 작품보다 노출이 적으며 좀더 은유적 표현으로 그려진 145쪽 작품만 경고를 받았다. 또 톰 웨셀만의 여성누드 207쪽 작품과 표현방법만 다를 뿐 거의 흡사한 내용과 포즈로 그려진 꾸르베의 작품 《세계의 기원》(71쪽 수록)은 음란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크로키 선으로 그려진 파블로 피카소의 《앵겔 페르난데즈와 여인》(15쪽 수록)과 이에 비해 섬세한 필치로 그려진 단원 김홍도 《사계춘화첩 중 1면》(21쪽 수록)은 남녀의 포즈는 물론 손가락의 위치마저도 같은 도상을 보여주는데 피카소의 작품만 교체가 요구되었다.

음란물 판정을 받은 도판의 제작년도를 관심있게 살펴보면 멀게는 에이쇼 목판화가

성과 관련된 예술표현은 인류의 시작부터 출발한다. 성애장면을 다룬 예술작품들은 역사 분야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동성애를 다룬 TV드라마가 방영되고,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이 실시되는 시대에 포르노사진도 아닌 성애를 묘사한 미술작품에 대한 음란물 규정은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까.

1800년도이며, 가장 최근작도 톰 웨셀만의 1962년도 작품이다. 윤리위의 입장대로 우리사회 또는 평균적 한국인이 아무리 문화 후진 현실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34~200년 전에 발표되어 이제는 인류가 공유하는 예술품으로 인정받은 작품들을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이를 향유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시대는 변했고 지금 이 순간도 변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도 잡혀가고, 동성애를 다루는 텔레비전 드라마도 인기리에 방영되며, 초등학교생들에게도 성교육이 실시되는 시대에 포르노 사진도 아닌 성애를 묘사한 역사 속의 미술작품들을 ‘분단국가·고통사회’ 운운하며 ‘음란물’로 규정하는 것은 ‘세계화사회·멀티미디어 정보화사회’를 살아가는 ‘문화후진국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색한 일이다. ❖